

# 美 루이지애나 주에 萬佛 조성된다

미국 루이지애나 주의 테리타운(terrytown)에 만불(萬佛)이 조성될 예정이다.

타임스 피카유(Times-Picayune)지는 "테리타운의 스텝프대로(stumpf Blvd.)에 베트남불교계 '리엔 호아 반 팻(Lien Hoa Van Phat) 사원이 건축 중'이라며 "10,000기의 불상을 조성해 걸프 해안가에서 가장 큰 사원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반 팻(Van Phat)은 베트남어로 만불(萬佛)을 뜻한다.

타임스 피카유지는 리엔 호아 반 팻 사원의 건축위원회 노리스(Norris) 위원의 말을 인용, "약 6,690㎡ 대지에 높이 16m의 불상 10,000기가 조성된다"며 "이는 휴스턴과 플로리다 사이에서 가장 큰 불교 사원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사원은 현재 기초공사를 마친 상태다. 건축 부지에 15m 쇠파이프를 박은 후 2m 두께로 시멘트를 붓고, 땅을 평평하게 다지는 과정은 끝났고 현재 철강 구조를 설치하는 과정이 한창이다.

"허리케인의 영향권인 테리타운의 특성상 초속 약90M의 바람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힌 홍 쿠안(Hong Quan) 씨는 "건축 자체 대부분 베트남에서 자수입하고 있다"며 "10,000기의 불상 역시 현재 베트남의 불교공예가에서 의뢰했고, 사원에 들어갈 가구 역시 베트남을 방문해 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리엔 호아 반 팻(Lien Hoa Van Phat) 사원' 건축 현장(사진 좌) 뒤편에 마련된 야외 법당(사진 우). 이곳에는 매주 베트남계 불자 4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법회가 봉행되고 있다.

## 베트남 불교계 '리엔 호아 반 팻' 사원 건축 중

### 올 연말 완공... 베트남 불교문화의 중심으로 발돋움

홍 쿠안 씨는 리엔 호아 반 팻 사원의 건축과 디자인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사원 설계에 따르면, 리엔 호아 반 팻 사원의 외관은 어두운 갈색 벽돌로 마감되고, 빨간색과 노란색 타일로 마무리될 지붕 모서리에는 황금용이 올려진다. 또한 스님과 불자들의 안식처가 될 사원 내부는 대리석으로 마감한다.

또한 연꽃 모양의 연화대에는 304cm 높이의 금불상이 주불로 봉안되고 주변 벽면

에는 높이 20cm의 소불을 조성, LED 조명을 설치할 예정이다.

"건축 비용은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의 베트남 불교계에서 대부분 조성했고, 홍 쿠안 씨처럼 베트남계 건축·인테리어 전문가들이 자원봉사에 나서고 있다"고 전한 노리스(Norris) 위원은 "루이지애나와 뉴올리언스의 베트남계 미국인들 대부분 70년대 전성 이후 이민한 이들"이라며 "이들은 미국에서도 베트남 문화의 맥을 이어가



는 데 큰 가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틱 구엔 탐(Thich Nguyen Tam) 스님은 "리엔 호아 반 팻 사원은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의 베트남 불교계 문화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베트남계 젊은이들에게 불교는 물론 베트남의 전통을 가르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임스 피카유지에 따르면 베트남 불교계는 리엔 호아 반 팻 사원의 건축 기간 중 건축 현장 뒤편에 야외 법당을 설치하고 틱 구엔 탐(Thich Nguyen Tam) 스님의 집전으로 매주 한차례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법회에는 매년 400여 명의 불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 달라이 라마, 망명 생활 청산설 제기

## 외신들 "중국 정부와 대화 순조롭게 진행 중"

티베트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사 진 왼쪽)가 인도 다람살라 망명 생활을 청산하고 티베트로 귀국할 수도 있다는 설이 제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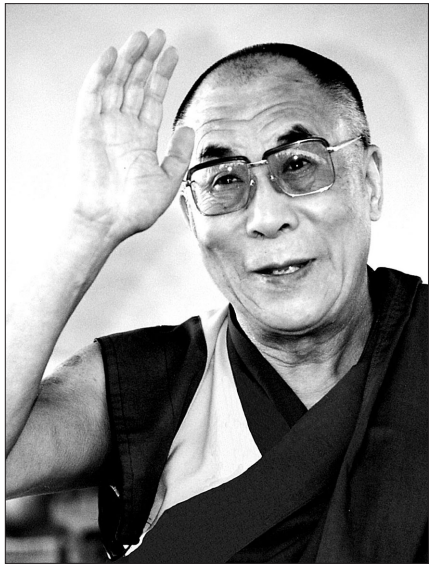
미국의 소리(VOA)는 9월 2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 타임스를 인용하며 "중국 티베트 자치구 우잉제(吳英杰) 당 부서기가 중국 중앙 정부와 달라이 라마 대표 간의 대화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달라이 라마에게 중국 산시(山西)성의 불교 성지 우타이산(五臺山) 순례가 허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VOA는 "우 부서기는 달라이 라마가 우타이산 순례 기간에 중국 지도자와의 회담에서 망명을 끝내고 귀국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달라이 라마가 귀국하려면 티베트가 중국 정부에 인정하고 '분열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조건을 내걸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소식통들은 달라이 라마와 중국 당국 간에 합의가 이뤄지면 달라이 라마는 먼저 중국 도시들을 방문한 후 우타이산 성지 순례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고위 간부가 그의 중국 방문 기간 동행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우 부서기가 9월 24일 티베트 수도 라싸(拉薩)에서 달라이 라마 특사와의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티베트 망명 정부(CTA)가 반박함으로써 달라이 라마의 방문설이 불투명해지고도 했다.

인도 다람살라에 있는 CTA의 톱상상이 총리는 10월 초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티베트 문제 해



결을 위해 중국 당국과 공식 대화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도 "지금 현재 중국 지도부와 공식 접촉이나 대화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달라이 라마는 9월 참석한 독일과 인도 회의에서 중국에 대한 선의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9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회의에서 "중국 측과 공통점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불교가 중화문화 진흥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말을 인용하면서 우타이산 성지 순례 희망을 표했다.

또한 지난 9월 18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종교 지도자 회의 개막식에서 시 주석은 전임 지도자보다 실용적이고 개방적이라고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 사찰 건립 모금 위한 자선경기대회

## 10월 12일 미국 콜로라도서... 상도 빨리 사원 건립 목표

세계 평화 자비·지혜 증진을 모토로 건립 중인 상도 빨리 사원을 돕기 위한 자선경기대회가 10월 12일 전 세계적으로 펼쳐진다.

현재 부다가야, 런던, 몬트리올, 버몬트 등에서 팀이 구성돼 있으며 이외의 뉴구라도 가족, 친구, 직장동료들과 팀을 이뤄 참여하고 기부할 수 있다. 모금 목표액은 7만 5천달러(한화 약 8천만원)다.

상도 빨리 사원은 달라이 라마의 스승이며 자애롭고 영감 넘치는 불교승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화를 주었던 달고 키엔체 린포체의 영원을 실현하기 위해 건립되는 사찰이다. 티베트 불교의 뛰어난 지도자 파드마삼바에게 봉헌된 것으로 그의 활동 지역이었던 '구릿산(Copper-Colored Mountain)'을 뜻한다.

콜로라도 남부 상그레 드 크리스토퍼산의 해발 2830m 높이에 건립되는 빨리 선원은 태양광 발전 등 자력적 시스템을 갖추도록 설계됐다. 경기 대회 일정은 아침 8



상도 빨리 사원의 조감도

시에 시작돼 오후 5시에 참가자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달고 키엔체 린포체가 임명한 날인 10월 12일에 열리는 경기 대회에는 모든 계층의 참가자들이 참여해 자비의 마음을 나눌 계획이다.

주최측은 "대회 동참은 기부 여부에 상관없이 사람들의 정신을 풍요롭게 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 파키스탄 5C 사원 유적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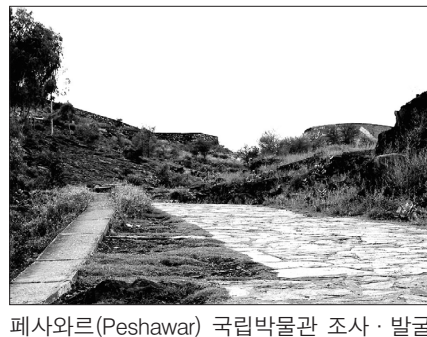
## 페사와르 국립박물관 조사·발굴팀 밝혀

파키스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원 유적이 발견됐다.

둔(Dawn)지는 페사와르(Peshawar) 국립박물관 조사·발굴팀의 보고서를 인용, "카이베르 파크툽와(Khyber Pakhtunkhwa) 주의 소도시 마르시에 있는 자말 카르히(Jamal Garhi) 유적지에서 5세기경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사원터를 새롭게 찾았다"며 "이는 파키스탄 불교사에 가장 오래된 사원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자말 카르히 유적지는 간다라미술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만큼 조사나 발굴 프로젝트가 다양하게 진행되는 곳으로, 스투파와 법륜 등을 비롯해 돌로 쌓아올린 건물의 흔적이 곳곳에 보인다.

페사와르(Peshawar) 국립박물관 측은 "이번 조사·발굴에서 파키스탄의 첫 사원 유적을 찾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우선 첫 사원 유적으로 추정되는 곳에 대



페사와르(Peshawar) 국립박물관 조사·발굴팀이 주목한 파키스탄 첫 사원지 전경

한 보존 대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자말 카르히 유적지는 1848년 영국 고고학자 알렉산더 커닝햄(Sir. Alexander Cunningham)에 의해 발견됐고, 2012년 후비사(Huvisha, A.D. 158~195년) 왕의 통치기에 사용된 동전이 처음 발견되면서 세계 고고학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오종욱 편집위원

# 인도, 제4회 불교 콘클라베 개최

## 23개국 200여명 참석... 인도 불교관광 패키지 주목

인도 불교유산의 가치를 조명하는 제4회 불교 콘클라베가 9월 26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됐다.

인도 관광부는 "이번 '불교 콘클라베'는 불교의 기원인 인도를 알리고, 불교의 진면목을 알리고자 하는 관광객의 여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이를 위해 불교유적이 많은 비하르와 우타르프라데시 주정부와 공동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 뉴스(Zee News)지에 따르면, 이번 불교 콘클라베에는 23개국 200여 명이 동참. 인도 관광부로부터 불교유산을 보존하고 개발하는 데 쏟고 있는 인도 정부의 노력과 그 결과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한편 비하르와 우타르프라데시 주정부에서 내놓은 '패키지 관광 프로그램'에도 호응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이번 불교 콘클라베는 국내·외 관광사업자 간의 프리젠테이션, 패널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고 전한 인도 관광부는 "비하르와 우타르프라데시 주정부에서는 '인도 불교유산'이라는 주제의 전시회도 마련해 이목을 끌었다"며 "이밖에도 안드라프라데시, 아루나찰프라데시, 아삼, 차티스가르, 구자라트, 히마찰프라데시, 카르나타카, 마디아프라데시, 마하라슈트라, 오리사, 라자스탄, 시창 등 10여 개의 주정부도 부스를 설치해 관광 패키지를 소개했다"고 전했다.

인도 불교유산 관련 관광패키지를 소개하는 '불교 콘클라베'는 지난 2004년 보드가야에서 처음 마련된 이후 나란다(2010년)와 바라나시(2012년)에서 각각 열렸다. 오종욱 편집위원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식**

주문은 현불상!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산소제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기반방식 내부: 메모리폼, 폴리우레탄

www.hyunbulshop.com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 염주세트

값 30,800원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www.hyunbulshop.com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 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상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